

2019년 1차 노인분과 축제TF 회의록

일 시	2019년 7월 24일(수) 10:30 ~ 13:00					
장 소	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1층 중회의실					
참석자(총10명)	성 명	확인	성 명	확인	성 명	확인
	임화선(공공분과장)	X	박인덕	O		
	전상원(민간분과장)	O	인원교	O		
	진혜원(TF팀장)	O	유사름(공공)	O		
	이찬수(총무)	X	장홍석	O		
	김지선(서기)	O	하창우	O		
	김수진	O	권양미(공공)	O		
	김중현(공공)	X				
회의주제 및 안건	1. 논의 사항 가. 2019년 노인의날 기념식 및 노인문화축제 추진 논의					

회의 결과

1. 논의 사항

가. 2019년 노인의날 기념식 및 노인문화축제 추진 논의

- 2018년 제22회 노인의날 기념식 및 노인문화축제 평가 내용 검토 결과 시간, 장소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복적으로 제시됨.
- 전반적으로 행사가 기념식 위주로 운영되다보니 그 외에 2부 공연, 전시, 야외 부스 등은 형식에 불과하다는 다수의 의견임. 그로 인해 어르신이 주체가 아닌 인원 동원의 객체로 비춰짐. 내부 1층 중앙의 내빈, 수상자들로 인해 생기는 공석도 해결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.
- 의전 시간을 축소하는 방안으로 내빈 축사, 1·2세대의 축하멘트, 어르신 당사자의 노인의 날 관련 스토리텔링 등을 담아 당사자가 공감할 수 있는 세대 통합 영상을 함축하여 제작하는 것을 제안함. 식전에 송출하여 이후 각 내빈들이 사회자의 안내에 맞춰 각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하는 정도로 간소화한다면 시간 절약이 될 것임.
- 근본적으로 부스 운영비를 제공할 수 없는 예산으로 구성하는 부스들은 실질적인 체험보다 단순 홍보·전시로 이루어져 참여가 어렵고, 평일 낮 시간대의 행사 장소가 유동인구가 적은 관계로 외부 시민에게 홍보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임. 시민 대상의 홍보를 하더라도 내부는 각 지회와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로 만원이기 때문에 외부 부스를 위해 일정 기준 이상 확대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. 따라서 내부 무대행사에 집중하여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기획하고자 함.
- 마찬가지로 전시도 공간 분산을 막고 동선을 간결하게 하기 위해 폐지함.
- 공연은 반드시 공연을 하는 주체가 어르신일 필요가 없고, 요즘은 과거 국악, 트로트보다 좀 더 화려하고 빠른 박자의 흥겨운 볼 거리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음. 청중의 입장에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1·2세대의 젊은 공연팀이나 퍼포먼스 위주로 섭외하면 좋겠음. 학교 동아리나 어린이집 등의 협조가 가능하다면 자연스럽게 세대 통합 및 가족행사로 시민 참여가 가능할 것임.

회의 결과

중간에 질 높은 시립합창단의 공연 등을 함께 넣어서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도 있을 것임. 어르신이 공연을 하게 된다면 단순히 각 기관에서 재능발표를 하는 형식이 아닌 개인 노래자랑 등으로 대항 응원전을 유도하는 등의 방안이 있음.

- 사업 예산 : 12,490천원 가용 범위 내에서 규모 검토 필요. 노인복지과에서 동영상 제작, 식대, 공연팀 섭외 등에 지출 가능 정도가 논의된 이후에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수 있을 것임.
- 기타의견 : 내년 사업 계획 수립 시 장소 변경에 대한 제안이 필요함. 화성행궁, 만석공원 등 일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여 지역 축제의 장이 될 수 있을 만한 장소 고려 필요함. 장소에 따라서 부스 확대를 고려해볼 수 있으며, 건강박람회 컨셉으로 관내 다양한 병·의원을 섭외하거나 시민 참여를 활용한 대형 퍼포먼스, 놀 거리·먹을 거리·바자회, 주 공연 외에 거리 버스킹 공연 등의 의견 제시함.

나. 차기 회의 일정

- 7/30(화) 10:00,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1층 중회의실